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1차

3월 23일(수)
광주양림교회(정태영 목사)

2차

3월 30일(수)
한밀교회(심수명 목사)

3차

4월 6일(수)
대명교회(장창수 목사)





106회기 전도세미나 일정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일정	장소	인도	설교 13:00~13:15	제1강의 13:15~14:15	제2강의 14:20~15:20
1차 3월 23일	광주양림교회 (정태영 목사)	임용택 목사	임용택 목사 요 3:16 “복음”	김대현 목사	홍승영 목사
2차 3월 30일	한밀교회 (심수명 목사)	정창호 목사	총회장 배광식 목사	김종일 목사	홍승영 목사
3차 4월 6일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김재철 목사	김재철 목사 막 1:35~39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김종일 목사	장윤제 목사

제106회기 전도세미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 목차 |

인사말 | 총회장 배광식 목사

격려사 |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발간사 | 교육부장 김학목 목사

김대현 목사 |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 전도를 가능하게 한 목회 13

홍승영 목사 |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전도의 핵심, 새가족 사역 25

김종일 목사 |

피켓 전도 35

장윤제 목사 |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을 통한 지역사회 열린목회 53

“코로나19가 단절시킨 전도, 복음의 현장에서....”

총회장 배광식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106회기 전도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
시기를 간구합니다.

만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거리를 두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 시대!, 만날 수 없었고,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대면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였
습니다. 비대면 전도 방법으로 동영상 전송, 메타버스 활용 등등.

그러나 우리는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복음잔치에 초대할 수 없었고, 신자로 양육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비어가고, 스러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한 기도운동 !

“은혜로운 동행”

우리 총회 임원, 리더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불씨를 키워 기도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 땅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믿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새 신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세대에도 믿음이 이어져야하고, 기도가 이어져야하고,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새벽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목사님!

새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잠을 줄여가며 기도하고 양육에 피땀 흘리신 목사님!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살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전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신 총회전도부 임원, 교회 관계자, 교육전도국 실무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총회전도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현 시대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요 권위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추진, 기후변화 대응과 대규모 감염병 방역과 같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총회는 어떻게 하면 지상명령인 전도를 효과적이고, 새 신자를 양육하여 성도로 정착시킬까 고민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등 시대 사조의 거센 도전에 고전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부치는 듯합니다.

십자가 복음보다는 개 교회주의와 심리적 위로, 기복적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구도자의 입맛에 맞추어 주는 현세중심적인 목회, 그리고 교회 외부의 도전인 반기독교적 정서 또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금번 106회기 총회전도세미나를 통하여 전도와 새신자 정착을 고민하며, 교회 밖에 있는 예비신자들과 교회 내에 있는 명목상 신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는 무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해답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전도부장 김학목 목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생활패턴이 깨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총회전도부 주최로 전도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도의 문은 막혔다!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 주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훌륭한 강사님들의 현장감이 넘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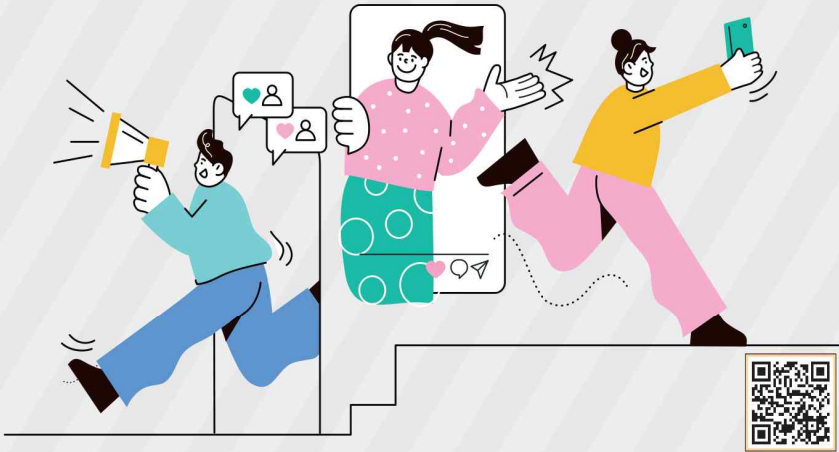
좋은 세미나! 유익한 세미나! 현장감이 넘치는 세미나! 가 되어 교회마다 잘 접목하여 큰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장소를 허락하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6회기 전도세미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
“총회 tv”로 검색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 전도를 가능하게 한 목회 _ 김대현 목사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전도의 핵심, 새가족 사역 _ 홍승영 목사
피켓 전도 _ 김종일 목사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을 통한 지역사회 열린 목회
_ 장윤제 목사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 전도를 가능하게 한 목회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 ‘제자삼는 세계 비전’

김대현 목사(큰숲맑은샘교회)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 비전은, 우리가 꼭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다)

1) 4 복음서의 결론은 ‘사명’이다.

(마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눅 24:46-48)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 21:17)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 ‘사도행전’의 시작도 ‘사명’이다.

(행 1:8)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 ‘교회’의 존재목적도 ‘사명’이다.

(행 2:41-47)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 ‘성도’의 신앙목적도 ‘사명’이다.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4장 6절~8절)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2.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제자 삼는 것’이다.
비전 완수의 <핵심 전략>은, ‘제자 삼는 것’이다.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1) 전략1: ‘너희’

(사 60:22)

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 사람이 전략이다. 세상 살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냥 사람 말고, 예수 믿고 양육과 훈련으로 검증된 제자를 말한다.
제자 삼는 첫 번째 전략은, ‘먼저 제자’가 된 성도들(너희)이다.
그 ‘1호 제자’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2) 전략2: ‘가는 것’

(막 4:35)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것이 제자 삼은 두 번째 전략이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가야 한다.

교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평안한 자리에서 치열한 고난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은 바로 변화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미숙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이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가치관의 변화’다.

이 땅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가야 한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패러다임이 변화를 받아 세계관이 달라져야 ‘저편’으로 가는 것이 되어 진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왔던 몸,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집행하게 된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3) 전락3: '세례 베푸는 것'

(고전 10:1-2)

-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의 일은,
'영혼구원'이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례 사건은, 모세를 통해 행하신 '출애굽의 홍해
도하 사건'이다.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의 주소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옮겨주는
것이다.

(골 1:13)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의 참뜻은, 복음을 전하여 출애굽 시켜라. 즉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다.

가서,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가서, 혹시라도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함이어야 한다. 여리고 성의 교훈처럼, 잘 돌고, 잘 침묵했다
면, 결정적으로 외칠 때 외쳐야 한다. 관계맺기만 주구장창하면 안된다.
관계맺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영적인 주소의 등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극한 사랑이나 애끓는 바람이나 뜨거운 관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롬 1:16)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의 인생과 그의 신분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

(요 1:12)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또 (고후 5:17) 말씀에도 이르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다.

4) 전략4: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딤후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후로 ‘온전하게’ 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성숙’을 뜻하는

말이다. 언제까지의 성숙인가 하며, 성도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때까지'이다. 무슨 말인가? '신앙'이 '삶'이 될 때까지라는 말이다.

'성도'란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긴 하지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골 1:28-29) 말씀과 (엡 4:11-14)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골1:28-29)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엡 4:11-14)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이것이 안 되면,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
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마침내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것이 나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심으로
목적이며 소원이시다.

성도에게 있어 자신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특권이다.

변질이 되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방법은 ‘변화’되는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네 번째 제자 삼는 전략을 따라 교회는, ‘지킬 때까지 성도를 가르치
는 것’이며, 성도는 ‘지킬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제자’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만 293번이나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반해 바울의 서신사로 넘어오면서는 ‘제자’라는 말이 손에 꼽을 정도로 현저히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제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서 다 종료되었고,
그 후에 세워진 일꾼들을 놓고는 ‘제자’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주장에 근거가 바로 바울의 서신서다. 바울도 ‘제자’라는 말을 쓰기에
그렇다는 주장인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진 않았으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소양에 해당하는 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역동적인 재생산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를 따라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것이다.

(딤후 2:2) 말씀을 다같이 읽자.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결론: ‘제자 삼아 비전을 성취하라’

(마 24:14)

24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4. 실전 사역

1) 제자 삼는 목회의 첫 단계는 ‘전도’다.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 :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소그룹 ‘행복모임’으로 교회가 시작.

2011년에 6명으로 시작한 교회, 행복모임을 통한 전도와 이어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일꾼으로 세우며 교회는 300명의 성도로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
게 되었으며 평신도 일꾼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도 1년에
두 차례 봄시즌(10주)과 가을시즌(10주) ‘행복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다.

2) 행복모임을 통한 효과

- a. 양적 부흥 : 매 주일마다 거의 빠짐없는 새 가족의 등록, 셀과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짐.
- b. 질적 부흥 : 전 성도가 전도하는 분위기에서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분위기 조성.
새 가족을 귀히 여겨 환영하고 축복하는 밝은 분위기 조성.
성도 개개인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의 고조 전도는 선교로 확장되어 진행됨.
본 교회 출신 14명의 단기 선교사(필리핀/인도)를 파송하는 열매.
- c. 뜻밖의 열매 : 개척 7년째 '새 성전 건축(건평 925)'이 시작되어 9년(2019년 9월)째 입당.
우리교회 개척과 성장 스토리를 국내외 교회에 소개할 기회를 얻음.
코로나 중에도 멈추지 않는 행복모임 사역.

3) 우리 교회 행복모임의 실제 내용

- a. <20년도 봄시즌>
행복모임: 39개 / 영접한 베스트: 45명 / 교회로 초청: 40명
 - b. <20년도 가을시즌>
행복모임: 54개 / 영접한 베스트: 75명 / 교회로 초청: 44명
 - c. <21년도 봄시즌>
행복모임: 73개 / 영접한 베스트: 95명 / 교회로 초청: 58명
 - d. <21년도 가을시즌>
행복모임: 105개 / 영접한 베스트: 145명 / 교회로 초청: 81명
 - e. 총 결산
행복모임: 271개 / 영접한 베스트: 360명 / 교회로 초청: 223명
- ### 3) 전도 소그룹 '행복모임'

주	포 커 스	새 봄 메 시 지	가 을 메 시 지
1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베스트 작성하기	행복모임1 1과 복음의 능력	행복모임2 1과 복음과 세계 비전
2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베스트 작성서 제출하기 3.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와 차 마시기	행복모임1 2과 행복모임은 성경적 전도소그룹이다	행복모임2 2과 행복모임은 성경적 복음운동이다
3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여리고기도 2.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타입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행복모임1 3과 참행복	행복모임2 3과 참평안
4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여리고기도 2.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타입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행복모임1 4과 속이는자	행복모임2 4과 구원의 길
5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여리고기도 2.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타입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행복모임1 5과 구원자 예수	행복모임2 5과 예수 이름의 권세
6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행복모임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여 A,B타입 베스트 모두 초청하기	행복모임1 6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모임2 6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7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좋은 관계맺기: 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B타입 베스트 모두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4. 지역전도하기: 행복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전도하기	행복모임1 7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행복모임2 7과 진정한 복
8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좋은 관계맺기: 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B타입 베스트 모두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4. 지역전도하기: 행복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전도하기	행복모임1 8과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승리	행복모임2 8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9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2. 좋은 관계맺기: 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A,B타입 베스트 모두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4. 지역전도하기: 행복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전도하기	행복모임1 9과 해방과 자유	행복모임2 9과 치료하시는 하나님
10	1. 기도하기: 소그룹기도, 개인기도	행복모임1	행복모임2

2. 좋은 관계맺기: A,B타입 베스트의 필요채우기 3. 초청하기: 행복모임에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여 A,B 타입 베스트 모두 행복모임에 초청하기 4. 지역전도하기: 행복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전도하기	10과 행복을 주는 교회	10과 낙심을 이겨라
--	---------------	-------------

4) 당돌한 상상

‘전도’를 통한 ‘배가 번식’으로 ‘도시 복음화’는 가능하다.

연 차		1	2	3	4	5	6	7	8	9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성도 수 (명)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	51,200
셀의 수 (개)	10	20	40	80	160	320	640	1,280	2,560	5,120
셀 리더 (명)	10	20	40	80	160	320	640	1,280	2,560	5,120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전도의 핵심, 새가족 사역

홍승영 목사(아름운가지 장지교회)

전도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

전도의 중요성, 교회 전도 사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한국교회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어 20세기에 가장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의 그러한 노고는 하늘에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의 사명으로 간절히 전도하지만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의 상가에 개척교회가 들어서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적잖은 교회가 개척 후 성장하지 못한 미자립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수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예배당도 건축합니다. 개척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꿈같은 소망이지요.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결코 단순히 말할 수 없고, 단순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 때문’이라거나 ‘설교를 잘해서, 전도 전략이 좋아서’ 등으로 편향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도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분명히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전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전도 이야기 : 부흥의 세 가지 요인

‘전도’라는 단어를 듣고 무엇을 떠올리시는지요? 어깨에 띠를 두르고 물티슈나 뽕튀기 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중년 성도가 떠오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초청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내하고 한번 와보라는 초청입니다. 총동원 주일에는 인원 목표를 정해두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참 많이들 왔었지요. 그리고 다음 주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청은 대단한 에너지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지만, ‘초청 사역’만으로는 성도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슬며시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운전을 배우는 것과, 유지 보수하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신 이웃을 교회로 데려온 것은 ‘초청 사역’은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배워서 운전을 시작해야 하듯이, 초청된 성도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서정을 깨닫고 복음을 믿을 때 생겨납니다. 그것도 전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복음 제시’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지요.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에서 ‘초청’ 사역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복음 제시’ 사역입니다. 자동

차를 얻는 것과 운전을 익히는 것이 모두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새가족이 생긴다면, 그의 믿음이 성장하며 구원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장이 필요하지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을 ‘정착 사역’이라고 합니다. 정착 사역에는 당연히 양육이 포함됩니다. 또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며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이끄는 ‘동역’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전도는 ‘초청, 복음 제시, 정착’의 세 가지 사역 분야를 조화롭게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 세 가지 전도에 대해서는 2021년 전도부 세미나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복음 제시 사역’을 초점으로 강의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시간 10분 지점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 하셔도 됩니다 /전도세미나(주함교회)로 검색

정착 : 코로나19 시대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역

열심히 교회로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했는데도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 번째 ‘정착 사역’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회나 전도 세미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다’는

점에 강조가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애를 써서 교회로 인도한 후에는 정착하도록 애쓰고 있는지요? 오랜 시간 어린이와 청소년,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전도에 열심인 분은 전도만 하지, 그분의 교회 출석에 대해서는 의외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 (1) 어렵습니다 : 한번 모셔오기도 어려운데, 계속 모셔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 (2) 현실적인 이유 :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주일에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부족한 잠을 자거나 등산, 골프 같은 취미생활을 즐겨왔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시간을 비웠지만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 (3) 다른 분을 모셔와야 해서 :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늘 새 영혼을 찾아잡니다. 이전(?) 영혼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에 400명을 등록시킨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의 출석 성도는 거의 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방 전도나 병원 전도’ 같은 ‘초청 사역’에 힘쓰고, 복음 제시하는 것을 익히는 ‘전도 훈련’같은 과정처럼,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별개의 사역이 따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흔히 ‘새가족 사역’이라고 부르는 정착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물통을 보시겠어요? 과연 이 물통은 어느 높이까지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지요. 물통의 다른 부분이 온전하더라도 결국은 깨져 구멍 난 높이까지의 물만 남을 것입니다. 전도에 비유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전도사

역은 새로 온 새신자가 흘러나가지 않고 정착 하도록 잘 돕고 있나요? 비록 노방 전도와 병원 전도에 힘쓰고, 사영리를 뜨겁게 전하여 영접한 성도가 있어도, 교회에 정착하는 사역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서울 극동방송에서 ‘복음 동네 1069’ 프로그램으로 전도할 때였습니다. 김선영 어머니(61세, 가명)의 딸이 어머니 전도를 요청했고, 전화 연결한 생방송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딸(지역교회 집사)과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대해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도의 한 도시에서 식당 직원으로 일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혼자 교회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당은 주일에도 일해야 하기에 더욱 난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길게 대화했고, 딸은 그 주말에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하루를 보낸 후 방송국에서 소개한 지역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주일 7시 예배를 신설하여 예배 후에 출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일 년 후,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방송에 초청하여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착 사역’이 없으면 새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정착 사역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주말 여가생활이나 식당일 같은 것은 정리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인식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받았으니 현실의 대가를 지불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는 요구는 당연하지만, 처음 믿은 새 신자에게는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힘들게 낳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독립한 인격으로 살아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착을 위한 새가족 사역 : 영적 갓난아기 돌보기 프로젝트

흔히 새신자가 교회에 온 것을 아기가 태어난 것에 비유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잉태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 온 집안에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새신자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 삼을 ○○○을 어느 교회에 보내서 잘 자라게 할까?”를 살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부모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를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새신자를 배려하려면 고민할 것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해야 할 설교일지라도 죄나 연보를 강론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불편한 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기의 양육을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도 비슷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준비와 환경의 변화에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안전한 가구로 교체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위해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에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그럴 각오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1) 새가족 사역팀의 준비 : 조직보다는 사역 중심의 봉사자들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불편하면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먹이고 돌보는 일은 빼먹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족은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저항을 겪는지,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도 교회에 알릴 줄을 모르니

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 잘 지내는 줄 알고 무심코 넘어가기 쉽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성도의 상태나 감정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잘 나오고 항상 웃는 표정이니까 은혜를 참만히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새가족을 잃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여 새가족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 줄 새가족 사역팀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극적인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새가족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새가족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은 긴 시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새가족 팀을 처음 준비한다면 어떤 조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함께 동역하는 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학교처럼 항상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기에 관리하는 조직처럼 운영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의 선배로서 후배를 사랑하고 돕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새가족 사역을 역동적으로 유지하고 오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새가족 팀원이 몇 명이며 언제 모임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 동역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새가족 양육과정의 준비 : 일대일 또는 소그룹

많은 교회가 새신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영리를 기초로 한 복음 설명과 예배 및 공동체에 연관된 한두 주제를 교육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해오다 이사 등의 사유로 전입해 온 성도라면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라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과정은 전입 성도와 새신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신자의 경우에는 믿음의 여러 주제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대일 양육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지속하는 일대일 양육과정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는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만일 새신자가 여러 명이라면 새신자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단둘이 있을 때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새신자인 소그룹에서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새신자가 그렇지 않은 새신자에게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특히 교회의 다른 소그룹이 새신자들을 잘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긴 기간을 함께 보내는 새신자 소그룹이 그 빈틈을 잘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이미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신자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관계처럼 깊어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상당히 익숙해지는 데는 3년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공유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친밀한 공동체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앙 경험의 공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 지나며 쌓이기 때문입니다.

(3)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프로세스

대부분의 교회에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놀랄만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는 말하는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프로세스는 준비되어 있는지요? 새신자는 교회에서 안내위원, 찬양대, 주차, 식당, 청소, 정리 등 다양한 봉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물론 전입 성도라면 이전 교회의 경험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는 사역자의 안내를 잘 따르는 편입니다. 목회자는 새가족 사역팀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새신자가 신앙 성장에 따라 적절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 사역은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토양이 됩니다. 거기에
는 봉사자들 간의 교제, 교회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의 교환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가족의 임무를 감당할 때 잘
성장합니다.

새가족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체육
대회를 하면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하자’거나 ‘전교인 전도 주일에
명단 관리를 도와달라’는 식의 요청입니다. 모든 사역은 ‘보여주고, 함께하고,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수됩니다. 처음에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짝을
이루어 함께 봉사하고, 이후에는 혼자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는 새가족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처음 출석한 사람을 3년 이상
신앙 생활하도록 이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새가족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또한 새가족 사역을 잘 수행하
면 항상 새신자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가족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
누구나 자기 주변의 불신자를 초청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축은 새가족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사역은 그 자체로 교회 본질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잘
준비한 새가족 사역은 초청전도가 활발해질 시대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 사역을 위해 더 생각해 볼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간 : 상황에 적합한 새가족 모임, 그때그때 달라요.
- (2) 새가족 모임은 그 자체로 전도의 통로입니다. 새가족이 새가족을 낳아요.
- (3) 소개 : 새가족은 정기적으로 성도들 앞에 소개해야 합니다.
- (4) 간증 :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본받는 것입니다.
- (5) 분류 :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성장에 따른 명단을 끝없이 분류해야 합니다.
- (6) 선발 : 새가족이었던 사람이 새가족의 심정을 제일 잘 알아요.
- (7) 바나바 사역의 특별 확장판 : 바나바를 끝없이 늘려갈 수 있어요.



피켓전도

김종일 목사(대명교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코로나 시대에 피켓전도의 필요성
3. 피켓전도의 시작과 성장과정
4. 피켓전도 에피소드
5. 피켓전도 후 받은 축복
6. 피켓전도의 방법론
7. 피켓전도와 교회 성장

1. 들어가는 말

전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초기 교회들이 사용한 복음 전도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그것은 대중전도, 가정전도, 개인전도, 문서전도 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면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수록 복음은 더 전파되어야 하기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명교회 담임목사, '피켓전도', '피켓예수', '피켓전도행진' 저자, 유튜브 '행복총전소TV' 운영자, 평안노회 증경노회장, 총회정년연구위원회 총무,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위원회 총무, 총회준비위원, 총회역사위원회 서기

어려울 때 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피켓전도와 교통봉사가 중단없이 전진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공동체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성수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재에서 탈출하여 거리로 나가십시오.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에게 하는 강력한 권고(勸告)입니다.

피켓전도를 통한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 자신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피켓전도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함께 피켓전도행진을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코로나 시대에 피켓전도의 필요성

1)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전도법이다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서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2) 사회법에 합당한 전도법이다

요즘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해도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전도지

를 배포해야 한다. 거리전도나 집회를 하려고 해도 구청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켓전도는 1인 시위처럼 혼자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어서,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안전한 전도방법이다.

3) 저비용 고효율의 전도법이다

물질적 부담이 없고, 인원에 상관이 없어 작은 교회에서도 단 한사람으로도 전도를 쉽게 시작할 수 있다.

4) 전도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전도법이다. 피켓을 제작해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5) 친근한 인사, 교통봉사 등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6)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7) 교회에 대한 자연스러운 궁금증을 유발하여 지역에 교회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게 된다.

3. 피켓전도의 시작과 성장과정

1) 두 번의 교회 개척과 상계동 대명교회 이전

교회를 두 번 개척하고 세번째 상계동으로 이전하여 이곳에서 21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주고자 ‘교인 사장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꽃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 졸업식 꽃장사는 추위와 장사꾼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꽃을 직접 만들어 새벽부터 싣고 나가는 일에 너무 지쳐서 쉬고 있는 중에 최춘선 목사의 기사를 읽고 전도자의 야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조용기 목사님 목표, 중단, 좌절, 이탈, 재도전 ~ 변화, 성장과정)

*** 피켓전도행진...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이야기...김종일 목사 ‘피켓전도행진’ 중**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Why Too Korean!"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노라고 30여년을 한결같이 말씀하시던 그 외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한 두 해도 아니고 30여 년을 변치 않고 그렇게 온 몸을 던져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떠를 두르고 나갈 때 나는 외칩니다.

미스 천국 ○○○, 미스터 천국 ○○○!!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전도하리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2) 교회 떠를 두르고 주보를 들고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감.(3무 전도 시작)

어느 날, 교회떠를 두르고 홀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전도하자!” 고 내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큰 죄인으로 중단했던 거리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 3) 허리협착증과 목디스크로 꽃장사, 노방 장사, 교인 사장 만들기를 하나님께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오직 전도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의 이중성 간증)

오히려 전도만 하니 그때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졌습니다.

- 4) 어느날 거리전도 중에 지하철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사진을 찍어서 출판사에서 일하는 작은 며느리에게 부탁하여 지금의 피켓이 제작되어 2018년 본격적으로 피켓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피켓 문의가 들어옵니다.

- 5) 혼자 시작한 노방전도가 부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사거리 출근시간에 365일 참석하는 개근 멤버가 구성되었습니다.

"전도는 나부터 삽니다."

- 6) 고정 전도대원이 많아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위험천만한 사거리 도로에서 담임목사님께서 LED조끼와 교통지시봉을 들고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신호등보다 목사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횡단보도를 건너한다고 합니다.

7) 버스와 택시, 모든 ‘기사님들께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사님들께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으로 사거리에서 경례를 합니다.
기사님들께서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8) 교통경찰, 지하철 직원 단속, 구청 민원 전화, 3년째부터는 단속을 안나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날, 추석도 안빠지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처음에는 피켓전도 나오지 말라고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고 시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나와 지혜롭게 계속 교통봉사를 하다보니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을 그 시간에 직접 만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경찰차도 ‘수고하십니다’하고 마이크로 인사를 해 주십니다.

매일 전도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알게 모르게 힘써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함으로써 이제는 피켓전도를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하니 세상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피켓전도의 산 역사입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고집부리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일사각오로 충성했을 뿐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직들과 전원일치로 결의를 다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 매 순간마다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9) 주민에게 선물도 받고, 전도용품도 들어오고, 풍성한 나눔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도지도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가며 주시는 선물들은 받고, 친절과 미소로 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터는 나눔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우산, 핫팩까지 구입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최고급 전도용품(마스크, 손세정제, 대용량검, 초콜렛, 사탕, 과자, 장갑, 손목보호대, 양말.. 등등)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후원 받아 시민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라고 절대 안받는다던 분들도 이제는 전도팀이 나눠드리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다고 받으십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길에서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아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길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시냐고 너무 감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거리가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께서 정성이 담긴 다양한 선물을 건네고 가십니다.

전도하는 분들에게 나눔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받는 분들도 각양각색(各樣各色)이기 때문입니다.

4. 피켓전도 에피소드

1) 경찰등장 - 길거리에서 매일 전도활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30여분 동안 옆에 서서 보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군요.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다.

- 2) 귀신 들린 할머니의 폭행 -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피켓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할퀴고 등을 때리며 “여기서 이거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마침 출근하던 우리 교회 자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아서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돌리며 “여기오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라지셨다.

하지만 출근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순간 이렇게 죽으면 순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사각오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켰고 그 후로 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 3) 구청 직원과 지하철 역장이 민원신고로 교회에 찾아옴

매일 전도하는 모습을 보던,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는 분이 이렇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더니 결국 구청과 지하철 역에 신고를 했다. 구청 직원과 지하철 부역장이 교회에 찾아왔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분들에게 피켓을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전도를 한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일이 없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조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 4)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켓전도 하면서 길에서 만나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겼다. 교회에 와도 매일 보던 얼굴이라 전혀 낯설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다.

5) 피켓전도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온 사람이 교회등록을 하게 된다.
나는 피켓을 들고 전도했을 뿐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온 사람이 등록하는 일이 생긴다.

6)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권사님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30대인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몸매와 미모를 자랑하는 권사님이다. 사실 이런 출중한 미모탓에 늘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처럼 살아왔다. 이런 분이 새벽 6시 30분까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차려 입고 나와서 커다란 피켓을 목에 걸고 전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피켓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잠이 많아서 오전은 늘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켓전도를 시작한 후 완전 새벽형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체력도 더 좋아졌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출중한 미모로 새벽마다 거리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복음을 전한다. 권사님이 스스로 고백하길 처음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거웠지만 막상 순종하니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걸 보니 피켓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산 증인이라고 간증한다.

5) 외국인 자매를 전도하다

날마다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간단한 아침인사를 하며 피켓에 영어로 쓰여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문구를 보여 주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자매는 잠시 2년 동안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의 만남을 통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메일을 통해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6) 트럭이 앞에 멈추다

어느 날 피켓전도를 하고 있는데 1톤 트럭이 앞에 멈추더니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도 교회에 다니는데 매일 전도하는 모습이 감동이라고 하시면서 주방세제 한 박스를 내려 놓고 가신다. 마침 교회에 주방 세제를 구입해야 했는데 어찌면 딱 맞춰서 보내 주시는지..

그 후 가끔씩 지나가실 때면 과자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등등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내려 놓고 가셨다.

7) 거리교회 : 전도 헌금을 주고 가시는 권사님

매일 아침 운동을 갔다 오시다 만난 타 교회 권사님은 자신은 전도를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동참하고 싶다고 전도헌금을 주고 가신다. 또한 자신의 패딩점퍼를 사다보니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하나 더 샀다며 쇼핑백에 담긴 점퍼를 건네고 가셨다.

이 외에 다른 분들도 출근길에 헌금봉투를 건내고 가신다. 다른 교회 다니시거나, 교회를 쉬는 분들이다. 피켓전도로 ‘거리교회’가 형성되었다.

8)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를 주고 가심

예수를 믿지도 않으시지만 매일 만나고 인사를 하다보니 너무나 친해지신 한 중년의 여자분이 어느날 아침 손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봉투를 건네고 바삐 가신다. 아침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추운데 전도팀 따뜻한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약속하나마 드린다고 건네고 가시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대접하신다.

이 외에 추운날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시라고 커피값을 건네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

9)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94세 권사님의 헌금

37세에 남편을 사별하고 6남매를 홀로 키우시고, 헌금을 하기 위해 94세에도 폐지를 줍는 권사님이시다. 타교회 권사님이시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신다.

10) 선물 -손수 새벽부터 만든 김밥/ 샌드위치/음료수/옷/제철 과일/꽃다발/신발/장갑/양말/과자/마스크/나물/떡/ 김장김치/건강음료/화장품 등 등의 수많은 선물이 들어온다.

11) 마스크 1000개 택배로 옴

어느날 교회로 익명의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유튜브 “행복충전소 TV” 구독자인데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 전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도용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며칠 후 KF94마스크 1000개가 배달 되었고, 그 좋은 마스크를 거리에서 나눠주니 지나가던 주민들이 다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시 주변의 큰 교회들도 일회용 저렴한 마스크를 전도용품으로 주고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마스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느냐며 놀라는 눈치이다. 전혀 모르는 분이 후원을 하셔서 나눠드린다고 했더니 이걸 정말 기적이라며 다들 신기해했다. 그분은 이후 목사님 사모님 전도하시는데 건강을 챙기셔야한다며 건강식품을 보내셨다.

12) 아침에 피켓전도팀이 없으니 사거리가 텅텅 빈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장례가 있어서 30분 먼저 전도현장을 떠났더니 그 후에 출근하시던 분이 나중엔 전도대원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던 전도대원들이 안보이니 걱정도 되고, 허전함을 느껴 눈물이 나셨다며 오래도록 이 자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단다.

5. 피켓전도 후 받은 축복

1) 영적인 축복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산다.

2) 건강의 복

전도피켓을 목에 걸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 허리 근육이 단련되고 손을 흔들면 맨손 체조가 되고 한쪽 다리로 앉고 일어서기를 하면 무릎과 다리 근육을 키우고 오직 예수를 보여 주고 싶어 까치발을 반복하여 들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진다.(평생직장, 평생 헬스클럽 무료 특별 회원권 체력단련장)

3) 재정의 복

이모저모로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고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서의 축복을 받았다. (승진, 연봉 인상, 임신과 출산, 아파트 청약 당첨, 대학원 박사 진학...)

4) 교인들의 전도 체질화

평일에 나오지 못한 교인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동참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전도가 체질화된다.

5) 자연스러운 교회 홍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친근한 교회, 동네 목사로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6) 피켓전도 전국 확대 (문의, 간증 집회 쇄도)

- 7) 피켓전도(1권), 피켓예수(2권), 피켓전도행전(3권)의 저자로 작가가 되었다.
- 8)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되고, 강사 초청, 총회 활동이 바빠졌지만, 우선적으로 피켓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 9) 덤으로 부교역자들은 유튜브 인기강사, 군인성 강사로 활동한다.(개인의 명예 충족, 물질 풍요)
- 10) 전도용품 후원자 생기고, 사방의 평안이 있다.
- 11) 구제, 선교 심부름꾼으로 활동도 이어졌다.
- 12) 유튜브의 활성화 - “행복충전소 tv” 구독자 수 2천 4백명으로 성장
- 13) 지역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지역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칭찬을 듣는다. (보도블럭 파손, 땅꺼짐, 위험한 취객 보호와 신고, 잃어버린 지갑 찾아 줌.)
- 14) 어느 날부터 주민에게 선물도 받고, 전도용품 들어오고, 풍성한 나눔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6. 피켓전도 방법론

1) 전도피켓 제작

“오직예수” 문구를 포함하여 각자 교회에 맞는 내용을 제작한다.

‘교단 마크’를 피켓에 표시하면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 2)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오직 예수” 피켓을 목에 걸거나, 세워놓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

예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은 정말 얼굴이 화사해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등등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른 인사를 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 앞이나, 사거리, 공원... 어디라도 좋다.

- 3) 버스, 택시 기사님들께 ‘먼저 인사하기’

사거리 전도 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피켓을 들고 서서 차량이 가까이 올 때마다 거수경례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면 너무 좋아하신다. 실제로 기사님들께서 너무 고맙다며 전도팀에게 차에서 선물을 많이 주셨다.

- 4) 미리 후보나 전도지를 준비해 놓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교회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나눠 드린다.

한쪽에 후보를 비치하여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두면 더 좋다.

- 5) 매일 조금씩 인사를 하며 관계형성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여러가지 인적 사항들을 메모해 두고 전도팀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계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6) 비 오는 날 우산 전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에는 1화용 우산을 준비해서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엄청 고마워하고 나중에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한다.

7) 핫팩 전도

영하 10도 정도의 강추위에는 작은 핫팩을 주머니에 따뜻하게 넣고 있다가 하나씩 손에 쥐어주면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8) 상황에 따라 거리 찬양, 간단한 악기 연주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9) 교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만들어 놓아라. (SNS활용)

피켓전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피켓에 써 있는 교회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는 묻지도 않고) 검색창에 교회 이름을 검색해 보곤 했다고 한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니 이단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도록 하라.

이단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10)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한 사람한테 거절 당하면 다음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계속 인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따뜻한 인사는 결국 마음을 열게 된다.

11) 한결같은 꾸준함이 정답이다.

“꽤 오래 하시네요”

몇 년째 매일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던 한 여성분에게 끊임없이

인사를 하자 마지못해 처음으로 한 마디를 한다. “꽤 오래 하시네요?”
“아! 네 이제 5년째 되네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할 줄 모르셨나 봐요?”라고 되묻자 “왜 조금 하다 다들 그만 두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렇다.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해야 한다.
피켓전도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한다.

7. 피켓전도와 교회성장

교회부흥을 원하십니까?
전도보다는 경영학을 배우십시오.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설교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개척 교회, 그리고 세번째 대명교회를 26년 전에 시작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전도를 왜 하는 건지, 비성경적 의식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전도왕, 즉석 영접기도, 부흥(숫자)이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미 신자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 감격해서 불신자가 떠오르고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까워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목사가 가야할 곳은 교회의 설교단 전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로 가세요.

불신자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보세요.

전도가 됩니다.

왜 교회를 채우려만 합니까?

피켓전도로 몇명이나 "등록"시켰는지 궁금하십니까?

코로나로 교회에 오지도 않는데 왜 전도를 계속 하나구요?

심령대부흥회의 쇠퇴는, 오직 예수가 아닌 교세(부흥), 건축헌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그결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목회 실패입니까?

전도의 열매는 성령님의 몫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숫자는 줄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늘고 있습니다.

몇명을 등록시켰다고, 자기 자랑하다가 큰 하나님 노릇도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선포에 초점을 맞춰야 "자리"를 지킵니다.

전도상으로 경쟁(경주자, 침노)을, 등록, 부흥, 건축, 성과, 결국은 자기 자녀 삼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귀신한테 붙들려 가지 마십시오!

자기도취, 성취감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예수! 십자가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전도자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피켓전도행전...구원 받으셨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Jenner는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노인이 된 Jenner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합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40년 동안 Jenner에게 그 짧은 질문을 듣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만 무려 146,000명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노인 Jenner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Jenner는 그 소식을 듣고나서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고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을 통한 지역사회 열린 목회 (행 2장42절-47절), (행 6장1절-7절)

장윤제 목사(청림교회)*

“10평의 기적” 왜 COS 작은도서관인가?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열린목회 플랫폼이다.

다음세대 주종교육과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비대면 모바일 코칭 무상 지원! (www.kwccc.co.kr)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은 두 기둥에 의해 세워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영적 본질의 기둥과 교회의 대사회명령인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교회가 성장되었고 역동적으로 세상과 소통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모습을 회복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좀더 펼쳐보면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임재로 인한 강력한 동력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일곱 집사를 안수하여 지역 내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구제사역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왕성한 교회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의 모습과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이 희망이라고 외치고

전하지만 정작 세상과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소통과 나눔의 삶은 보이지 않은 말뿐인 복음으로 삶이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유지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닌 지역을 섬기며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로 지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서 작지만 강한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서관은 이 시대 교회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전도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지역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문가인재를 발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지역중심의 교회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현재 부흥하는 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지역 속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고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함께 나누게 될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은 10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지역을 섬기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건전성에 있어서 지역중심적이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성과 확장성,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은 너무나 시의 적절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1. 지역사회 전도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

4차 산업시대를 넘어 5차 산업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교회의 전도방식은 점점 더 뒤쳐져 비신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별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관련 방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투자 대비 오래 가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림교회(장윤제 목사)는 일찍부터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열린목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윤제牧사는 8년째 COS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장 목사는 2013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내 개척하여 교회내 COS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다음세대 주종교육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다. 교회마다 전도가 한계에 다다른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요중심의 관계전도 시스템을 통한 전도의 그릇을 만들 필요성을 장 목사는 강조한다. 장 목사는 “교회가 지역 주민의 필요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블특정 다수에게 쏟아붓는 관계전도에서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계전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내 COS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설립과 동시에 공익성, 확장성, 접근성, 수익성을 담보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에 저예산의 미자립교회와 개척을 준비하는 예비 사역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작은도서관 설립은 거리제한이 없고, 개수제한이 없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설조건을 갖추면 현행법상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

근래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교육관을 지어서 다음세대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복지센터, 문화센터나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역동적인 교회

가 사회 참여하는 방식의 기본 목회 사역의 틀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70% 미자립교회들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이에 청림교회는 미자립교회도 최소 10평 이상의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교회내 공식적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화센터, 교육센터, 상담센터, 복지센터의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계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운제 목사는 코로나19사태 이후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기존 교인들마저 떠나가는 요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지역의 필요를 주제로 소통 하고 어울리며 필요중심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지역주민과의 문화소통의 장이 되어 지고 다음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거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확신했다. 앞으로의 미래목회는 차별화된 브랜드목회를 선점해야 하는 데 그중에 한 분야가 바로 지역사회 열린목회(COS-Community Open School)라며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을 조건 없이 섬기며, 다음세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부흥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도서관은 이전과 달리 단순히 책을 빌려가는 곳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자기 계발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자기주도학습과 평생교육, 지역사회봉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회내 운영중인 도서관의 80%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이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교회의 역할로 흡수하려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 편견을 가져 기존 교회내 도서관을 설립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림교회는 세대별로 통합할 수 있고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바리스타

교육은 재료비만 받고 민간자격증까지 제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더니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고 현재 장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청림교회는 6년 동안 8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교회 재정의 안정화도 찾고 있다. 하지만 장 목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역시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에 제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누구나 회원만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드림원격평생교육원(www.kwccc.co.kr)을 개설해 다양한 70여개의 민간자격증 강좌를 열어 필요중심 관계전도 전문가양성을 위한 리더쉽코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가 무상으로 경력단절 주부들에게 취업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자격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회 내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주중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관과 말하는영어공부방을 저비용으로(월회비 5만원, 주2회 수업) 개설해 제공하여 매일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가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활동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개발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관현악 동우회를 설치해 정서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창의놀이 교육의 일환인 창의영재놀이 프로그램으로 레고 블럭 및 보드게임 등 놀이교육과 다문화 한글교실, 문화체험교실,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성교육, 인성교육, 속독교실, 독서학교 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교회내 COS 작은 도서관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센터, 교육센터를 넘어 상담센터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장윤제 목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COS 작은도서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면서 “결국 도서관은 지역사회 열린학교의 개념으로서 소통공간, 문화센터의

공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센터의 공간, 독서치유를 통한 상담센터의 공간, 자원봉사캠프를 통한 사랑 나눔 복지센터의 공간을 실현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상승하게 되어 작은 교회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만들수 있다”고 확신했다.

드림원격평생교육원에(www.kwccc.co.kr)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글쓰기, 토의토론, 방과후지도, 인성지도, 진로적성, 자기주도학습코칭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 한국교회의 미래지향적인 목회 방향은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현 교회 환경 문제의 핵심은?

다음세대의 부정적 생태환경문제, 지역소통문제, 재정자립문제, 안티세력과 이단애 의한 반 기독교적 사회 환경 조성으로 인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교회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제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고민해야한다. 통계를 본 현재 미자립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재정난, 인물난, 프로그램 부재에 따른 한국 교회 70%가 상가 미자립교회로 임대료 문제로 연간 2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후 갈 곳이 없다. 전국 60%의 교회가 주일학교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인구 절벽과 사교육 증가와 공교육 부실로 인한 교회 미래 생태계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이제 개혁 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는 지역문을 열고 현실 참여 방법으로 지역 필요중심적 관계전도의 플랫폼으로 작은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일문화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방향은 주중문화로 바뀌어야한다.

다음세대와 지역과 건강한 소통을 위하여 준비된 한국교회의 지역내 플랫폼은 북카페 작은도서관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열린학교로서의 가능성을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COS-Community Open School)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북카페 작은도서관운동과 방향은?

1. 다음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운동이다.
2. 지역을 섬기고 지역과 소통하는 사랑방운동이다.
3.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필요중심의 관계 전도운동이다
4. 교회의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법적근거는?

작은도서관 설립은 도서관법 제2조 4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18조1항, 20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제4조, 5조에 의거하여 각 지역마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마을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Law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시행일 2012.8.18]]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북카페작은도서관의 기능?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역거점형 관계전도 플랫폼 기능

1. 복합문화센터기능 - 지역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지역 소통 사랑방 역할을 전개. 세대별 특화된 학습동아리 개설 (청소년, 주부, 노인, 다문화 등)
2. 자기주도학습센터 기능 - 다음 세대의 안전한 케어와 인성, 감성, 영성, 지성을 갖춘 다윗과 같은 글로벌 4차원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해간다.

다음세대 주중 방과후 교육팀 구성

3. 자원봉사센터기능 -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내 실추된 교회 위상 회복시켜 간다

사랑나눔 사회봉사팀 구성으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

4. 바우처 상담센터 기능 - 지역내 부부, 아동, 노인 갈등 예방 및 조정 해소 및

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위한 바우처 심리상담 지원팀 구성

■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영 순서는?

1. 자격 및 조건 갖추고 신청 (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바리스타1급자격)
2. 작은도서관 도서준비 (한글도서, 영어 원서)
3. 도서관설립신청서 제출 (10평, 도서1천권, 좌석6석이상)
4. 도서관등록증 교부 받아서 세무서 제출하여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5. 작은도서관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다.
6. 작은도서관 TF구성 및 운영자교육
 - 1) 독서학교 및 독서논술교육
 - 2) 방과후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자 코칭교육
 - 3) 문화센터 운영자교육
 - 4) 자원봉사캠프 교육
 - 5) 도서관행정업무교육
 - 6) 작은도서관 성공사례 발굴 견학
 - 7) 사회공헌프로그램 프로워킹 사업제안서 작성법
7. 회원모집 홍보전략 수립

■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치는?

미자립교회는 도서관의 활성화로 변형교회- 회중교회- 공교회로 발전

1. 10평이상 공간확보 2. 도서천권 이상구비 3. 좌석 6석 이상

- 1) 도서관신청-도서관 등록증 교부
- 2) 세무서에서 도서관등록증, 정관, 회의록, 무상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 3) 은행에서 도서관 고유번호증 제출해서 법인통장 만들면 완료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어도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프로그램지원과 강사활동으로 인한 강사로 지원, 방과후 학교와 지역주민을 강좌개설시 무자격자는 강의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격과 조건 없으면 자원봉사로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은 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저희 법인에서 무료수강으로 지원하고 있다. 드림원격평생교육원www.kwccc.co.kr에서 지원하고 있다.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작은도서관 설립은 거리제한이 없고, 개수 제한이 없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설조건을 갖추면 현행법상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 10평 공간, 도서 1000권, 좌석 6석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1주일 안으로 실사 나와서 서고 열람면적, 도서목록, 화재 위험이 있는(도서관법31조) 부엌공간,(썰크대, 배식구 가림) 확인 점검 후 승인을 내준다. 단 세금체납자와 금치산자. 무허가건물인 경우는 허가되지 않는다. 도서목록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없이 도서관 등록신청서와 도서관시설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일주일내로 실사 후 도서관등록증을 받는다. 도서관등록증 교부받으

면 도서관정관+대표자선출 회의록+2년이상 무상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면 고유번호증 80, 82번 교부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준비영리단체 법인등록증이 나온다. 불허가 나와도 공무원과 다투지 말고 서면으로 불허이유를 요청하면 된다. 불허가 나올 경우는 무허가, 재개발지역 또는 세금체납자인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도서관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지 말고 지원비와 관련해 긴급적 묻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서 신규시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도서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이제 도서관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도서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기에 감사와 세무조사등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설치와 관련된 서류는 najajime@hanmail.net 요청하시면 첨부파일로 제공하여 드린다.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세미나와 비대면 모바일 리더십코칭 세미나문의 010-3297-8240 장운제목사

■ 북카페 작은도서관 법적, 경제적 혜택

1. 연말정산을 통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20% 감면혜택
비영리민간단체 준 법인등록(고유번호증취득)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여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혜택(손비처리)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소득세 10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 법인은 법인세율 한도 내에서 세금 30~40% 감면
2. 사회사업단체에 프뤼퓹잘 참여 사업비지원
3. 연간 신규 도서구입비지원(5-6백만원)
4. 월 회비를 받아서 재정자립형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5. 300세대 신규아파트 작은도서관 무상위탁운영 - 임대료, 관리비, 냉, 난방비 무료

신규아파트에 제안서 신청해서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설립할 수 있다. 2006년 주택건설기준법 제55조에 의거 300세대 신규아파트 단지내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업체가 지역편의시설로 60평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신축단지를 사전 조사하여 작은도서관운동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현대, 롯데, LH공사 사회공헌팀에 신청하여 선정받으면 5년무상으로 관리비 없이 냉,난방무료로 분기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지원받는다. (신천지, 통일교전략적 신청) -아파트전도에 최고의 방법-

6. 학습동아리 문화강좌 개설시 분기별 강사비지원

도서관설립시 평생교육시설 자동등록으로 각종 문화강좌 개설운영가능

7. 푸드뱅크 지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특화된 회원을 구성하여야 받을 수 있다.

8. 노인대학 및 다문화 한글교실 운영 시 시청과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강사비지원

9. 도서관 CMS 후원계좌개설 모금

10. 마을공동체 우선 지정대상

1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하여 준다

■ 관계전도와 지역소통 거점으로서의 북카페작은도서관의 중요성

북카페 작은도서관은

- 지역 사회의 작은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 북카페의 교회이름을 없애라/ 교회 이름의 북카페는 거부감을 줌
-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라.
- 북카페는 징검다리이다.(커피교육, 도자기, 상담외의 교육장으로 활용)
- 어린이 독서습관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 개최(독서전문가 초청)

북 카페작은도서관 운영의 예

- 밀양초동교회 이용호 목사 7~8명의 미자립교회가 도서관사역으로 완전자립
- 일산 백석의 커피마을
청소년 인터넷 상담/ 커피교육의 장/ 교회는 놀이방으로 활용/
- 하계동 림 카페는 도자기 공방으로 지역과 소통/

학부모와 접촉점 찾기

- 어린이 스스로 북 카페에 오지 않는다. 학부모와의 접촉점을 찾으라.
- 학교를 통한 방법:
(자율학습과목에 바리스타교육 있음/ 자율학습 시간 특히 바리스타 교육은 학부모도 동참 그들과 교제 가능)
- 상담을 통한 접촉점 찾기(도형상담과 어린이 미술상담외 상담도구 활용)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장소(볼력 쌓기/ 악기활용과 연주교육)
- 인터넷을 활용한 자녀상담과 북 카페에서의 상담으로 ON/OFF 라인 활용

북카페 활용방안

- 커피교육의 예: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커피무료교육 실시
(주중 하루나 이틀 정도 무료 커피 교육실시 이론, 로스팅, 커피머신 드립 외 교육)
- 상담의 예: 도형상담 및 기타 상담자격증 취득 후 무료 상담실시
- 재능(도자기 외)기부의 장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을 북 카페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나눔의 장으로 활용한다.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TF분과도의

○ 작은도서관 운영토론회

1.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

- 교회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려 교회도서관을 설립하였다
-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교회도서관 설립하였다.
- 교회 로비공간을 도서관을 열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도서관이 거리가 멀리 있어서
- 지역주민과 교회와의 다리역할을 통하여 전도로 연계하기
- 방과후 학습(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의 방치됨을 막기 위하여)
- 일반인 흡수하여 전도를 하고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 입시위주교육의 병폐를 독서문화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 교회도서관에 대한 견해와 현장 분위기
- 교회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관할구청과의 깊은 관계
- 교회 안에서의 운영에 있어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 독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행하여 교회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도서별로 분류하며 학년별로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일반도서관은 거리도 멀고 들어 가는 것도 제한이 많은데 교회 도서관은 접근이 쉽다.
-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유익하다.
- 교회가 나누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 교회가 지역사회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입시교육만 하는데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다.
- 학생들 성적향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전도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

다.

2.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

(1) 운영인력확보(상근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의 필요성 ?

- 보다 더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함 - 카페개설 및 활용, 자치센터 등 연계하여 파트타임으로 운영인력(봉사자원자) 확보
- 다독상등 독서관련 시상식 - 독서지도를 통한 상담 및 치료
- 독후감 양식의 다양화를 통한 독서 흥미유발
- 중,고등학생인 경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차츰 변화된 모습으로 변함
- 독서프로그램(글쓰기)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회도서관을 운영하므로 인하여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
- 교회주변 주민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 한다.
- 교회 안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준비되어 있는 인적자원이 있다.
-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상근자가 되고 그밖에 도울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면 된다.
- 상근자는 약간의 사례를 하고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한다.
- 만약 적정한 대상자가 없으면 교회 밖에서 찾아서 부탁한다.

(2) 신간서적 구입의 방법과 필요성 ?

- 서점과 연결 하여 20% 할인해서 구입하기
- 목회자 자신이 헌신하여 봉사하고 사역자 헌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책사서 읽고 기증하기운동
- 누구나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신간서적 공동구매, 교회특별헌금을 통한 서적구입하기

- 신간구입을 해야 도서관이 활성화 된다
- 교회 예산에 반영하여 신간도서를 구입한다
-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이사제도를 뒤서 그들이 도서관구입에 협력 하게 한다
- 책구입 바자회를 열어 신간도서구입자금으로 활용한다
- 출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간서적을 기증을 요청한다.
- 작은도서관 서적지원
해마다 시립, 국립도서관에서 연 7%의 서적이 의무적으로 교체되어 1억여권의 도서 가 소각 처리된다. 지역 내 국, 공립도서관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다.

(3)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방법: 도서열람 및 대출, 독서왕 선발대회, 어린이 독서캠프, 어린이독서지도(논술지도), 어린이청소년, 성인영어교실, 문화교실 (종이접기, 미술, 공예 등)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한글교실, 이야기발표회, 독후감쓰기 등.

- 독서캠프 운영함 - 50일간(기도, 책읽기운동)
- 평상시 1주일에 1권의 책읽기 (읽고 적용하기)
- 영화상영 - 애니메이션 등등
- 북카페 운영하기
- 생활에 접목시킬수 있는 부분 (부부관계, 자녀교육, 자녀 인성 등)들을 통해 주민들과어우러짐과 지역아동들에게 장학금 제도 만들기 등
- 책을 좋아하는 성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음악(클래식)과 함께 곁해서 독서프로그램에 포함한다
- 교회도서관이 법적인 관계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 자기 교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도입
- 책읽고 발표하기 - 웅변대회

- 책내용을 그림으로 연결시키기
-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 해당자 지원 사회 자치단체 도움요청
- 저자와의 만남 -사인회도 적절함

■ 북카페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열린학교 (COS-Community Open School) 개설

1. 독서학교-독서지도, 토론, 인문학강의, 책만들기
2. 다문화 한글교실-이주민노동자센터, 다문화가정, 이주민 노동자 한글지원
원
3. 지역내 아이맘 행복나눔학교
유아 및 초등생 부모교육, 공동육아, 유아교육정보, 방과후 홈스쿨링
4. 방과후 창의놀이학교
레고블럭, 보드게임, 드론, 3D프린트, 창의영재학교
5. 문화체험학교-마을축제체험 역사박물관. 문화유적, 숲체험, 마을여행
오케스트라 동우회 악기교육
6. 힐링주부노래학교-주부가요
7. 생태환경보존-푸른숲학교
8. 부부, 아동, 노인 상담학교
지역내 갈등 예방및 조정 해소
9. 농.어촌 귀농마을학교
10. 노인실버 학교-월빙, 월다잉, 노인경제, 건강교육, 치매, 건강댄스
11. 방과후 대안학교-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자기주도학습운영, 진로적성,
인성, 논술, 영어리딩클럽, 속독, 온라인학습코칭, 코딩, 스토리수학
등

■ 교회도서관 주변 환경과 독서인구의 필요성

- 지역적인 전문서적을 사전 조사및 실시함
- 프로그램 실시전 외적요소- 지역문화 연계성 내적요소- 시설갖춤
- 연령층에 따른 프로그램과 동기부여
- 책읽고 토론하기와 시상 -스티커 발부
- 책읽는 사람집에 문패에 독서왕 문패 붙이기

■ 도서관운영 예산확보 방법과 기타 운영방법

- 초기 도서관마련 - 지인, 성도, 지역 사회도서관에 부탁하여 서적 기증받기
운동 전개
- 교회헌금을 통한 예산확보(카페운영을 등을 통해)
- 성도들에게 도서구입비 헌금 및 도서 선교비 후원
- 교회재정 ○ 운영위원 이사 후원금 ○ 회원제 회비
- 운영바자회 ○ 간식제공
- 일반인들을 포함한 CMS후원계좌개설을 통한 후원금 모금
- 사회복지단체 공모사업에 프로튀잘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기금마련

■ 작은도서관과 관계전도의 연결과 필요성

- 교회가 우선적으로 자녀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천함으로써 직접 보고 느끼도록하여 전도로 연결 할 수 있으며 불신자에게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다.
- 어린이, 학생 들 책과 장년 책을 다량구입이 중요
- 학생들을 책을 읽게끔 해서 장년으로 성장 하도록 한다.
- 독서의 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도의 결실로 연결 한다
- 유명 인사들을 소개해서 부모의 의식을 고취한다.
- 부모초청 시화전 - 갤러리

- 부모초청 동화 구연 대회
- 부모초청 자녀성적 향상 강좌
- 주부 컴퓨터 교실
- 오케스트라 동우회 연주회발표
- 한문교실
- 문화교실
- 영화상영

■ 기타 토의 내용

- 네트워크
- 온라인 연결
- 카페개설과 연결
- 도서관 잘운영하는곳 탐방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안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lip.go.kr> 자료관리시스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등록시 서적명, 저자, 출판사, 가격, 출판년도 등 입력하시고 위치선정시에 책꽂이 위치를 잘 선정하여 입력하도록 합니다.

■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

- 1) 다양한 관계전도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
- 2) 다음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글로벌인재로 세우는 역할기대
- 3)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소통의 장으로서 역할기대
-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무상교육 섬기의 장으로서의 역할기대
- 5) 교회 내 관계전도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일꾼양성의 역할기대
-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교육 중심의 장으로서의 역할기대

■ 북카페 작은도서관 초기 성공전략 포인트

1. 시장 수요조사
2. 지역내 홍보전략

(온라인 맘카페 가입필수, 중고도서, 의류, 장난감 수거후 알뜰시장 및 바자회개설, 각종 도서관내 학습동아리 운영시 회원가입신청의무로 회원확보, 도서관내 학습동아리 활성화, 각종 사회단체 프로워킹 사업참여, 지역주민 자녀 레고블럭방, 보드방 등 놀이시설제공, 주부가요교실 운영, 가정심리상담소 운영, 바우처 사업참여, 오케스트라동호회 운영)

3. 도서관실무행정능력배양,
프로워킹 사업 공모에 필요한 행정능력 필수교육
4. 코칭교사 능력배양
5. 성공사례 벤치마킹
6. 재정수익형 사업참여
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 필요중심 관계전도 비대면 무료 모바일 리더십코칭 www.kwccc.co.kr

다음세대를 세우고 지역과 소통하는 모바일교육으로 필요중심 관계전도 전문가 양성지원!

스마트폰이 4G를 넘어 5G시대에는 들어선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기술 환경의 발전과 엄청난 속도와 정보처리 능력으로 대인관계의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SNS시대의 흐름을 따라 일반 성도에게도 모바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청림교회는 모바일 리더십코칭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교회내 성령받고 사명받은 지역사회 관계전도 전문가를 무료로 양성하여 비대면 온라인시대에 새로운 전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원하며 모바일 리더십코칭 1일 세미나를 통하여 활용법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70%의 개척 교회와 미자립교회는 전도의 일꾼과 교회를 홍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바일 활용으로 교회 내 관계전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필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도의 다양한 거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바일 리더십코칭은 건전교단의 교회 목회자, 사역자, 성도는 누구든지 무료로 회원가입하고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일 세미나 신청시 온, 오프라인 관계전도 지역사회 열린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010-3297-8240 장윤제 목사)

■ 드림원격평생교육원 수강신청방법 www.kwccc.co.kr

먼저 회원가입시 추천인은 반드시 "섬기시는 교회명" 또는 "목사님 성함"을 꼭 기입하시고 강의수강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수강가능하다.
kwccc.co.kr/m 은 모바일 수강시 아이디와 비번 클릭후 입장하신 후 수강할 수 있다.

■ 수강신청하기

먼저 회원가입 하시고 아이디와 비번 치시고 상단중앙 수강 신청에 들어가셔서 맨우측

1. 빨강색 과목 신청하기 누르고
2. 다음페이지 하단 빨강색 신청하기 클릭하고 하단쪽 검정 완료 클릭하시면 수강신청 완료

■ 강의 수강은

우측상단 온라인강의실 수강과목에 빨강색 학습 누르시고 수강할 수 있

다. 수강완료 후 반드시 문자로 "수강완료" 보내주시면 이후 자격증신청 과정을 별도로 안내하며 모든 교육 과정은 국가가 위탁,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등록된자격증 발급이 인준된 교육과정이다.(단, 1급 자격증 발급비 별도)

제106회기 전도세미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전도, 가능하다!**

기 획 부장 김학목 서기 임용택 회계 정창호 총무 김재철
편 집 자 문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편 집 지 도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
편 집 총회교육전도국
 국장 노재경 차장 오택현 대리 오광중 주임 유장현
발 행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발 행 처 총회교육전도국
주 소 0617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서울 강남구 대치2동 1007-3)
전 화 02-559-5671 팩 스 02-567-5655
발 행 일 2022. 3. 23.

※ 본 자료는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